

식민통치 저항한 시인 김영랑  
항일 비밀결사 활동한 김한필  
동맹휴학 참여해 퇴학 고인석  
전남운동협 활동 옥고 박동준  
독립만세운동 참여한 이호상  
독립선언서 군중 배포 민영진

# 그들의 독립열정 마침내 빛 보다

광복절 73주년 맞아 광주·전남 출신 6명 독립운동 공적 인정  
건국포장·대통령 표창 추서... 오늘 광주시청서 후손에 전수

민영진 선생은 1919년 3월 전북 전주 고사정 천도교 교구실에서 인종악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군중에 배포하는 등 독립에 기여했다.  
보훈처는 강진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일제의 회유에 맞서 항일운동을 한 시인 김영랑(본명 김윤식) 선생에게도 건국 포장을 추서한다.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유명한 김영랑(1902-1950·본명 김윤식) 선생에게

는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김 선생은 태극기를 만드는 등 3·1운동을 준비하다 체포돼 2개월 10일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30년대 '독(毒)을 차고' '가야금' 등 시를 발표하며 식민 통치에 저항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선생의 본적은 강진이나 유족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에서 포상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들 5명에 대한 포상은 오는 15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제73주년 광복절



김영랑 시인 (92·건국훈장 애족장)·노동훈(91·대통령 표창) 등 애국지사 5명이 생존해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기념식에서 후손에게 전수한다.

현재 광주시에 이준수(95·건국훈장 애족장)·이기환(94·건국훈장 애족장)·김배길(92·건국훈장 애족장)·김영남(92·건국훈장 애족장)·노동훈(91·대통령 표창) 등 애국지사 5명이 생존해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태극기, 그 앞에 서다 14일 광주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만대관 1층에 '태극기, 그 앞에 서다'를 주제로 한 태극기 상설 전시관이 새롭게 개관한 가운데 방문객들이 전시관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제73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김영랑 시인 등 광주·전남 출신 독립운동가 6명이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았다.  
국가보훈처와 광주지방보훈청은 김한필(金漢弼·1914~1949) 선생에게 건국 포장을, 고인석(高麟錫·1909~1997)·박동준(朴東俊·1914~1970)·이호상(李浩相·1890~1975)·민영진(閔泳珍·1869~1947)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을 각각 추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한필 선생은 무안군에서 사회과학연구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항일 비밀결사인 전위동맹에 가입해 '농민', '반전뉴스' 등의 격문을 필사하고 1934년 9월 전위동맹의 비밀문서를 보관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고인석 선생은 1928년 6월 광주 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항일운동을 한 5학년 동료 이경재의 퇴학과 식민지 교육에 항의하는 5개월간의 동맹휴학에 참여했다가 퇴학 처분을 당했다.

그는 동맹휴학 주동자로 지목돼 일제의 예비 검속을 피해 서울로 갔고 이후 동경으로 유학 갔으나 상해로 쫓겨갔다는 사실 외에 1938~1943년 사이 기록이 전무해 가족들은 선생이 가명 등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동준 선생은 1933년 2월 완도에서 전남운동협의회 결성에 참여하고 같은 해 12월 청년반을 운영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이호상 선생은 1919년 4월 11일 해남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체포돼 태형 60대를 맞았다.

## 젓소고기 한우 둔갑 '양심을 판 식당'

전남 농관원,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68곳 무더기 적발

수년간 젓소 고기 1t 가량을 한우 생고기로 속여 판매한 광주 유명 생고기 식당 등 광주·전남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68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14일 관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취약업소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관내 전통시장·유명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1608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 중 68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소 중 43개 업소는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의 유명 생고기 식당인 W식육식당은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t에 달하는 국내산 젓소 고기를 한우 생고기라고 속여 88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순천의 P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을 소비자가 쉽게 알

아볼 수 없도록 반으로 접어 진열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6곳)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곳, 쇠고기 8곳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유명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 등에서는 피서객을 상대로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3곳도 적발됐다.

전남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여름철 보양 음식을 많이 찾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외국산 연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양고기류 취급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단속하기로 했다. 위반 업소명과 위치, 적발 내용 등 구체적인 단속 결과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계엄 문건 관련 기무사·국방보안연구소 등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동수사단은 14일 오전 9시부터 기무사 사령부와 기무사 예하 연구소인 국방보안연구소, 기무사 예하 부대 1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정밀검토를 마친 합수단이 문건작성 경위와 지시관계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에 주목하고, 문건작성을 주도한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건 작성 관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보안연구소와 기무사 예하 부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 모두 문건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관측돼,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문건작성 실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찰 측 수사단과 군측 수사단이 함께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를 포함해 20여명의 검찰 수사 인력과 군측 요원들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단 설치 후 검찰과 군이 공동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 군산 빌라 합숙여성 사망 전 3개월간 상습폭행 당해

전북 군산에서 합숙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일당은 3개월간 상습폭행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암매장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23)씨 등 5명과 숨진 B(여·23)씨는 지난 3월부터 군산시 소룡동 빌라에서 함께 지냈다. 당초 C(26)씨 부부는 지난 2월 '빌라에서 같이 살 동거인을 구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냈고 이들 6명이 모이게 됐다. 6명 중 남성은 3명, 여성은 3명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물품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합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 5명은 지난 3월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생활비를 면제받는 대신 설거지 등 살림을 맡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숨진 B씨의 처리 방법을 놓고 갈등을 보이던 이들은 결국 B씨의 외부 상저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암매장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연합뉴스

## 새벽 차량 털어 80만원 금품 훔친 10대 2명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새벽시간대 길거리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을 탄 혐의(특수 절도)로 A(17)군 등 청소년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0일 새벽 4시30분께 복구 운암동 골목길에 세워진 B(24)씨의 차량에서 현금 12만원과 65만원 상당 금반지를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 친구인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유형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

렀고,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에게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는 장물 취득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시동 소리 시끄러워" 소주병으로 차 망가뜨린 50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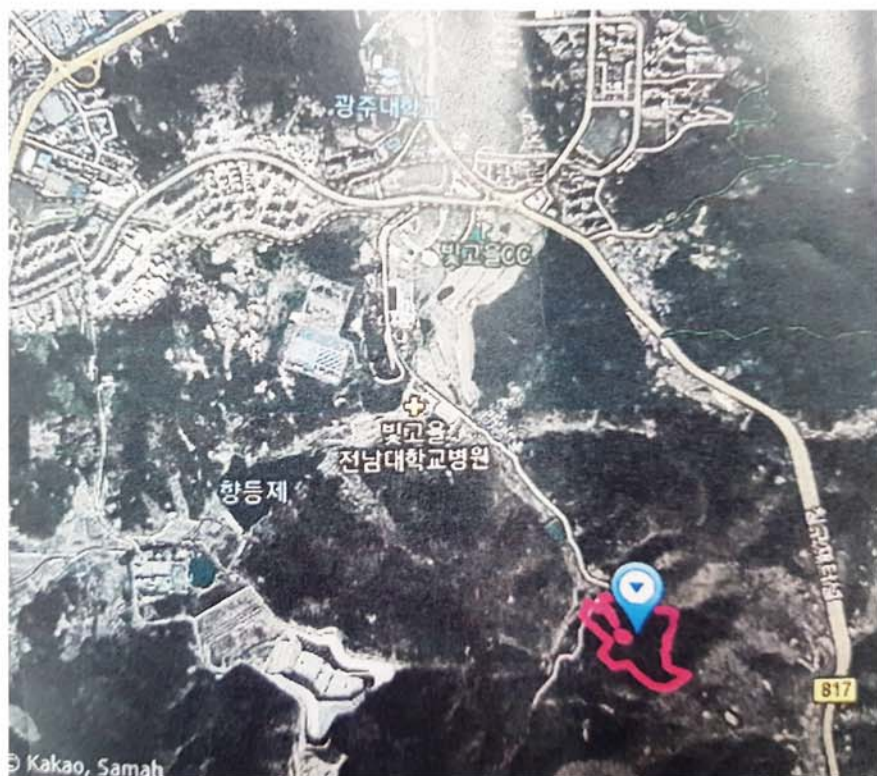
○...주차된 차량의 시동 소리가 시끄럽다며 집에서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차를 망가뜨린 50대 여성이 경찰서행.

○...14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A(여·52)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모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김모(45)씨의 소유의 렉스턴 차량 앞 유리라 보닛을 소주병

으로 내리쳐 파손했다는 것.

○...이날 A씨가 차량을 파손하던 당시 차안에는 아무도 없고 시동도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차량시동 소리가 거슬려 차를 파손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일단 A씨를 귀가조치하고,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